

고 소 장

1. 고소인

가. 최병선

성남시 분당구 동판교로 156, 909동 601호

휴대전화: 010-9313-9144

나. 백성만

인천 미추홀구 석정로301번길 14-7, B03호

휴대전화: 010-9433-2786

고소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해법 담당변호사 이철희, 심정운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8, 702호

전화: 02-535-5009, 팩스: 02-535-5002

2. 피고소인

가. 김웅 (830627-*****)

서울 성동구 행당로 79, 106동 303호

휴대전화: 010-8251-0485

나. 김영옥 (740316-***)**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162길 71-7, 401호

휴대전화: 010-3896-0485

다. 남혜정 (890714-***, 일명: 오혜나, 박나연)**

대전 서구 도안동로 183, 1505동 603호

휴대전화: 010-5522-7478

고 소 취 지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로 고소를 제기하오니, 피고소인들의 범죄행각을 철저히 조사하여 엄히 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 소 사 실

1. 피고소인 김웅, 김영옥, 남혜정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소인 김웅은 2023. 4. 26.경 불상지에서 고소인 최병선에게 “건강기능 식품 ‘프로메가’ 5만 개의 구매가를 1개당 7,400원으로 하여 1개당 8,200원에 판매하면 3억 7,000만 원(=7,400원 × 5만 개)과 4억 1,000만 원(= 8,200원

× 5만 개)의 차액인 4,000만 원(= 4억 1,000만 원 - 3억 7,000만 원)이 대한상인의 수익이다” 라고 하면서 “2023. 5. 2.부터 2023. 5. 4.까지 프로메가 5만 개를 판매한 후 판매 당일 대한상인으로 (수익을) 송금하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구매가에 위 수량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제품을 구입하는 데 전액 사용하지 않고 채무 변제나 피고소인 김영옥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는 등 개인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약속한 때에 상품이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들은 위와 같이 고소인 최병선을 기망하여 주식회사 대한상인으로부터 같은 해 4. 26. 주식회사 오케이종합유통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173-910009-73904)로 1억 3,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5.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65,750,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소인들은 피해자 최병선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고소인 남혜정의 사기

피고소인 남혜정(박나연)은 2023. 5. 10.경 불상지에서 고소인 백성만에게 “(자신이) 파란고래에 지급한 계약금 중 6천만 원은 파란고래가 보유하고 있으므로 기존에 입금한 금액 외에 1억 5,000만 원을 더 입금하면 건강기능식품 ‘텐프스’ 1만 개를 공급하겠다” 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어컴퍼니는 2023. 5. 11. 피고소인 박나연 명의 계좌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러나 피고소인 남혜정은 사실은 당시 약속한 때에 위 구매가에 위 수량

전부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소인 남혜정은 어컴퍼니에 2023. 5. 10. 텐프스 7,000개, 같은 해 5. 12. 텐프스 1,000개를 공급하였으나, 4,200만 원 상당의 나머지 텐프스 2,000개는 공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소인 남혜정은 고소인 백성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고 소 이 유

1. 당사자들의 관계

가. 고소인

○ 고소인 최병선은 유통회사인 주식회사 대한상인(이하 ‘대한상인’이라 합니다)의 대표이사이고(첨부서류 1. 등기사항증명서), 고소인 백성만은 유통회사인 주식회사 어컴퍼니(이하 ‘어컴퍼니’라 합니다)의 실질 대표자입니다(첨부서류 2-1. 등기사항증명서, 첨부서류 2-2. 백성만 명함).

나. 피고소인

○ 피고소인 김웅은 주식회사 오케이종합유통(이하 ‘오케이종합유통’이라 합니다, 첨부서류 3. 등기사항증명서)의 본부장 또는 CEO(첨부서류 26-1, 2 김웅 명함)이고, 피고소인 김영옥은 오케이종합유통의 대표이사입니다.

○ 피고소인 남혜정은 스토리컴퍼니의 대표자, 엔케이네트웍스 주식회사(이하 ‘엔케이네트웍스’라 합니다)의 대표이사(첨부서류 4. 등기사항증명

서)로서, 오혜나, 남은전자상거래(첨부서류 5.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 박나연의 명의를 차용한 자입니다.

2. 피고소인 김웅, 김영옥, 남혜정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가. 거래 진행경과

1) 2023. 4. 25. 3,450만 원(건강기능식품 ‘오쏘몰’ 5,000개 대금의 10%)

○ 피고소인 김웅은 2023. 4. 24. 고소인 최병선에게 ‘오쏘몰 9,000개를 1개당 69,000원에 공급하고, 1개당 69,500원~73,500원에 판매할 수 있도록 하되, (같은 날) 14:00까지 계약금으로 대금의 10%, 내일(2023. 4. 25.) 계약금으로 대금의 10%, 2023. 4. 28. 9,000개 전부를 출고한다¹⁾’는 제안을 하였습니다[첨부서류 36. 최병선-김웅 카카오톡 대화(2023. 4. 24.) 1쪽].

○ 고소인 최병선은 2023. 4. 25. 피고소인 김웅에게 ‘오쏘몰 5,000개만 진행하되 계약금으로 대금의 10%, 상차(上車)²⁾ 시 잔금으로 대금의 90%를 지급’하는 조건이 가능한지 문의하였고, 피고소인 김웅은 ‘최종 조율 결과 같은 날 14:00까지 대금의 10%, 내일(2023. 4. 26.) 대금의 10%, 상차 시 대금의 80%를 지급하는 내용’의 수정 제안을 하였으며, 고소인 최병선은 이에 응하였습니다[첨부서류 37. 최병선-김웅 카카오톡 대화(2023. 4. 25.) 1쪽].

○ 이에 대한상인은 2023. 4. 25. 14:01경 오케이종합유통 명의 하나은행

1) 잔금 80%는 출고 시 지급합니다.

2) 상품을 화물차에 싣는 것을 의미합니다.

계좌(173-910009-73904)로 계약금 **3,450만 원**(= 69,000원 × 5,000개 × 1/10)³⁾을 이체하였습니다[첨부서류 24. 대한상인-오케이종합유통 거래내역 1쪽].

○ 거래결과: 그러나 대한상인은 오케이종합유통으로부터 상품을 전혀 공급받지 못하였습니다.

2) 2023. 4. 26. 1억 3,000만 원(건강기능식품 ‘프로메가’ 5만 개의 계약금)

○ 피고소인 김웅은 2023. 4. 25. 고소인 최병선에게 ‘내일(2023. 4. 26.) 오전 중으로 주식회사 종근당(이하 ‘종근당’ 이라 합니다)의 건강기능식품 ‘프로메가’ 10만 개를 구매할 수 있다면 말해 달라’ 고 하면서 ‘(대한상인이) 내일(2023. 4. 26.) (프로메가 10만 개의 계약금) 2억 6,000만 원을 지급하고, 2023. 5. 4. 잔금을 결제하면 된다. 2023. 5. 1.부터 같은 해 5. 3. 사이 (프로메가) 10만 개가 출고되고, 판매일정을 잡아서 출고된 상품을 바로 판매해 주겠다’ 고 하였습니다.

○ 피고소인 김웅은 같은 날 고소인 최병선에게 ‘(고소인 최병선의) 프로메가 구매가는 1개당 7,400원이므로, 1개당 8,200원~8,800원에 판매하면 1개당 8,200원에 판매 시 8,000만 원 $[(8,200\text{원} - 7,400\text{원}) \times 10\text{만 개}]$ 의 수익이, 1개당 8,800원에 판매 시 1억 4,000만 원 $[(8,800\text{원} - 7,400\text{원}) \times 10\text{만 개}]$ 의 수익이 난다’ 고 하였습니다[첨부서류 6. 최병선-김웅 카카오톡 대화(2023. 4. 25.)].

○ 고소인 최병선이 2023. 4. 26. 피고소인 김웅에게 ‘계약금 2억 6,000만 원을 마련하기 어려워 프로메가 구입의 진행이 어려울 것 같다’ 고 하자, 피고소인 김웅은 ‘(대한상인이) 1억 3,000만 원을 조달할 수 있으면, 나머지 1

3) 수수료 500원 제외.

억 3,000만 원은 (대한상인이) ‘바른마켓4)’ 으로부터 송금받은 후 (대한상인이) 합계 2억 6,000만 원을 오케이(종합)유통에게 송금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 피고소인 김웅은 고소인 최병선에게 ‘프로메가 10만 개 중 5만 개의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바른마켓이 대한상인에게 발행하고, 나머지 5만 개의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오케이(종합)유통이 대한상인에게 발행하되,

○ 바른마켓 5만 개의 경우 구매가를 1개당 6,500원으로 하여 1개당 7,200원에 판매하면 3억 6,000만 원(=7,200원 × 5만 개)과 3억 2,500만 원(= 6,500원 × 5만 개)의 차액인 3,500만 원(= 3억 6,000만 원 - 3억 2,500만 원)을 대한상인이 바른마켓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고,

○ 오케이종합유통 5만 개의 경우 구매가를 1개당 7,400원으로 하여 1개당 8,200원에 판매하면 3억 7,000만 원(=7,400원 × 5만 개)과 4억 1,000만 원(= 8,200원 × 5만 개)의 차액인 4,000만 원(= 4억 1,000만 원 - 3억 7,000만 원)이 대한상인의 수익이다’ 라고 하면서 ‘2023. 5. 2.부터 2023. 5. 4.까지 프로메가 5만 개를 판매한 후 판매 당일 대한상인으로 (수익을) 송금하겠다’ 고 하였습니다[첨부서류 7. 최병선-김웅 카카오톡 대화(2023. 4. 26.)].

○ 고소인 최병선은 바른마켓으로부터 1억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2억 6,000만 원 상당의 프로메가를 매수하는 내용의 거래는 거절하고, 대한상인이 조달할 수 있는 자금인 1억 3,000만 원 상당의 프로메가만 매수하기로 하였습니다.

4) 바른마켓은 유통업체로, 피고소인 김웅은 대한상인이 바른마켓으로부터 1억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위 금액에 상당하는 거래를 할 것을 권유하였습니다.

○ 이에 대한상인은 2023. 4. 26. 12:25경 오케이종합유통 명의 하나은행 계좌(173-910009-73904)로 1억 3,000만 원⁵⁾을 이체하였습니다[첨부서류 24. 대한상인-오케이종합유통 거래내역 1쪽].

○ 거래결과: 그러나 대한상인은 오케이종합유통으로부터 상품을 전혀 공급받지 못하였습니다.

3) 2023. 4. 26. 3,450만 원(오쏘몰 5,000개 대금의 10%)

○ 2. 가. 1)항 기재 거래에 따라, 대한상인은 2023. 4. 26. 16:38경 오케이종합유통 명의 하나은행 계좌(173-910009-73904)로 대금의 10%인 3,450만 원 (= 69,000원 × 5,000개 × 1/10)⁶⁾을 이체하였습니다[첨부서류 34. 대한상인-오케이종합유통 거래내역 1쪽, 첨부서류 38. 최병선-김웅 카카오톡 대화 (2023. 4. 26.) 3쪽].

○ 거래결과: 그러나 대한상인은 오케이종합유통으로부터 상품을 전혀 공급받지 못하였습니다.

4) 2023. 4. 28. 1억 3,800만 원(프로메가 10만 개 대금의 20%)

○ 피고소인 김웅은 2023. 4. 27. ‘원청(原廳)⁷⁾에서 저희 팀으로 움직이는 분이 많은 제품을 싸게 가져오고 있다’ 고 하면서 ‘프로메가의 구매가를 1개당 6,900원으로 하고 1개당 8,200원 이상에 판매하되, 월 10~20만 개를 독점공급하고 1주일에 5만 개를 출고하며, 계약금은 대금의 20%, 10만 개를 거래할 경우 (대한상인의) 매입 금액은 6억 9,000만 원(= 6,900원 × 10만 개), 판매가는 (최

5) 수수료 1,000원 제외.

6) 수수료 500 원 제외.

7) 오케이종합유통에 상품을 공급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소) 8억 2,000만 원(= 8,200원 × 10만 개)으로 하여 차액을 1억 3,000만 원(= 8억 2,000만 원 - 6억 9,000만 원)으로 하고, 제품은 매입부터 판매까지 진행하되 매입처와 매출처 사이에서 대한상인의 매입 및 매출 거래가 발생하도록 하겠다' 고 하였습니다[첨부서류 8. 최병선-김웅 카카오톡 대화(2023. 4. 27.)].

○ 피고소인 김웅은 2023. 4. 28. 고소인 최병선에게 '자신이 어제(2023. 4. 27.) 한 제안을 검토한 후 13:00까지 진행할지 여부를 알려달라' 고 하였습니다. 이에 고소인 최병선은 '① 계약금을 대금의 20%로 진행하면 물건을 받고 현물로 판매한 후 정산되는 것인지(대금의 20%에 해당하는 자금만 있으면 되는지), ② 1주일에 5만 개, 1개월에 20만 개의 프로메가를 공급할 수 있는지, ③ 1개당 6,900원의 구매가와 1개당 8,200원의 판매가에 변동이 없는지' 를 문의하였습니다.

○ 이에 피고소인 김웅은 고소인 최병선에게 '① 현물 판매 후 정산 가능하므로 대금의 20%에 해당하는 자금만 있으면 된다, ② 1개월에 15만 개의 물량을 보장하겠다, ③ 매입금액(구매가)과 판매금액의 변동이 없다' 고 하였습니다.

○ 피고소인 김웅은 고소인 최병선에게 '계약금은 대금의 20%인 1억 3,800만 원' 이라고 하였고, 이에 대한상인과 오케이종합유통은 2023. 4. 28. 피고소인 김웅이 위와 같이 말한 내용을 기초로 하여 상품공급약정을 체결 하였습니다(첨부서류 30. 상품공급약정서).

○ 대한상인은 2023. 4. 28. 14:11경 오케이종합유통 명의 하나은행 계좌(173-910009-73904)로 1억 3,800만 원⁸⁾을 이체 하였습니다[첨부서류 24. 오케

8) 수수료 1,000원 제외.

이종합유통 거래내역 1쪽].

○ 거래결과: 그러나 대한상인은 오케이종합유통으로부터 상품을 전혀 공급받지 못하였습니다.

5) 2023. 4. 28. 2,500만 원(덴프스 4만 개 계약금의 일부)

○ 대한상인은 2023. 4. 28. 22:18경 오케이종합유통 명의 하나은행 계좌(173-910009-73904)로 2,500만 원⁹⁾을 이체하였습니다[첨부서류 34. 대한상인-오케이종합유통 입출금(2023. 4. 28.)].

○ 대한상인이 위와 같은 내용의 거래를 한 이유는, 피고소인 남혜정이 고소인 백성만에게, ‘피고소인 남혜정은 오케이종합유통에, 오케이종합유통은 대한상인에, 대한상인은 어컴퍼니에 덴프스를 순차적으로 공급하도록 하는 형태의 거래 구조를 요청’ 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 피고소인 남혜정은 2023. 4. 28. 고소인 백성만에게 기존 덴프스 1만 개의 구매가를 1개당 21,500원에서 19,500원으로 인하하는 대신, 총 4만 개를 1주일에 1만 개씩(매주 화, 목요일에 5천 개씩) 공급하기로 하였습니다.

○ 고소인 백성만이 덴프스 4만 개를 모두 매수할 자금이 부족하다고 하자, 피고소인 남혜정은 기존에 어컴퍼니가 지급한 오쏘몰에 대한 계약금 7,645만 원(= 6,950만 원 + 695만 원)을 덴프스에 대한 계약금의 일부로 하고, 이에 2,500만 원과 2,375만 원을 더한 합계 1억 2,520만 원(= 7,645만 원 + 2,500만 원 + 2,375만 원)을 덴프스에 대한 계약금으로 하되, 잔금은 상차

9) 수수료 500 원 제외.

시 1억 5,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고 덴프스 1만 개를 어컴퍼니에 공급하기로 하였습니다.

○ 그러나 어컴퍼니는 2023. 5. 11. 피고소인 남혜정으로부터 덴프스 7천 개, 같은 해 5. 12. 덴프스 1천 개만 받고 나머지 2천 개는 받지 못하였습니다.

○ 피고소인 남혜정은 고소인 백성만에게 덴프스 계약금 1억 2,520만 원은 덴프스의 총판인 주식회사 파란고래(이하 ‘파란고래’라 합니다)에 입금되었다고 하였으나, 피고소인 남혜정은 파란고래에 위 돈을 입금한 사실이 없다고 파란고래 이현석 실장(010-4477-2470)이 확인해 주었습니다.

○ 거래결과: 대한상인은 오케이종합유통으로부터 상품을 전혀 공급받지 못하였습니다.

6) 2023. 5. 2. 2,375만 원(덴프스 4만 개 계약금의 나머지)

○ 2. 가. 5)항 기재 거래에 따라, 대한상인은 2023. 5. 2. 16:08경 오케이종합유통 명의 하나은행 계좌(173-910009-73904)로 2,375만 원¹⁰⁾을 이체하였습니다[첨부서류 35. 대한상인-오케이종합유통 입출금(2023. 5. 2.)].

○ 거래결과: 그러나 대한상인은 오케이종합유통으로부터 상품을 전혀 공급받지 못하였습니다.

7) 2023. 5. 12. 2억 8,000만 원(프로메가 7만 개 및 5만 개의 계약금)

○ 피고소인 김웅은 2023. 5. 2. 고소인 최병선에게 ‘종근당 자회사인 주

10) 수수료 500 원 제외.

식회사 슈마웰(이하 ‘슈마웰’이라 합니다, 첨부서류 31. 등기사항증명서)이 공급하는 프로메가 5만 개를 같은 날 14:00에 확인할 수 있다’고 하면서, ‘화요일(2023. 5. 2.) 물량은 수요일(2023. 5. 3.)까지 판매하고, 수요일 물량은 목요일(2023. 5. 4.)까지 판매하여 목요일까지 판매한 대금으로 슈마웰에 잔금을 지급하고, 목요일 물량은 그 다음 주 월요일(2023. 5. 8.)까지 판매하고 슈마웰에 월요일까지 판매대금으로 월요일 잔금을 지급하겠다’고 하면서, ‘매주 출고 물량을 모아서 목요일 및 금요일에 한 번에 판매를 진행하겠다’고 하였습니다.

○ 피고소인 김웅은 2023. 5. 2. ‘슈마웰 물량은 같은 날 16:00 1만 개 출고될 예정이고, 내일(2023. 5. 3.) 물량까지 받아서 목요일(2023. 5. 4.)에 판매하겠다. 프로메가 10만 개는 목요일(2023. 5. 4.) 2만 개, 다음 주 화요일(2023. 5. 9.) 9만 개 입고예정이며, 다음 주까지 10만 개 출고 후 판매를 진행하겠다’고 하였습니다(첨부서류 10 최병선-김웅 카카오톡 대화(2023. 5. 2.)).

○ 종근당 건강 담당자라고 주장하는 자(휴대전화 010-4972-5448, 추후 이는 고소외 김현수¹¹⁾로 밝혀졌습니다)는 2023. 5. 3. 고소인 최병선에게 ‘2023. 5.초 발주물량 초과와 배송지연으로 인하여 금주 예정이었던 제품의 출고가 연휴 이후로 연기되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습니다.

○ 고소인들은 2023. 5. 9. 커피전문점 아르고티 대치점(서울 강남구 역삼로 432)에서 피고소인 김웅, 오케이종합유통에 제품을 공급하는 원청인 스토리컴퍼니의 대표자 피고소인 남혜정¹²⁾을 만났습니다(첨부서류 13.).

11) 그러나 고소외 김현수는 종근당 건강 담당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다른 사건으로 수사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12) 고소인 최병선, 피고소인 김웅, 남혜정이 먼저 만났는데, 고소인 최병선이 이 자리에 고소인 백성만을 불렀다고 하자, 피고소인 남혜정은 ‘고소인 백성만은 자신의 본명(남혜정)을 모른다. 고소인 백성만에게 자신의 본명을 알리지 말아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피고소인 남혜정은 2023. 5. 2.

○ 고소인들이 같은 날 피고소인 남해정에게 왜 상품이 출고되지 않는지 물어보자, 피고소인 남해정은 프로메가가 출고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프로메가의 출고 총판인 슈마엘에 2023. 4. 26.자 프로메가 5만 개의 계약금 일부 1억 3,000만 원이 입금되어 있고, 에스트론에는 2023. 4. 28.자 프로메가 10만 개의 계약금 20%인 1억 3,800만 원이 입금되어 있다. 슈마엘에서 피고소인 김웅이 1억 3,000만 원을 빼가는 바람에 물건이 안 나오니 차라리 1억 3,000만 원을 에스트론에 입금해서 다음 주부터 7만 개를 납품할 예정인데, 슈마엘에서 환불하면 1주일이 걸리니 차라리 2억 3,000만 원을 더 입금하면 다음 주까지 대한상인에게 7만 개를 납품하겠다. 또한 2023. 5. 15.까지 (위 7만 개와 별개로) 프로메가 5만 개 중 1만 개를 보내줄 테니 1억 원을 추가로 입금하되, 5,000만 원은 같은 해 5. 12. 입금하고, 나머지 5,000만 원은 같은 해 5. 15. 상차 시 입금하라’ 고 하였습니다.

○ 한편, 어컴퍼니는 2023. 5. 3. 피고소인 남해정(박나연)에게 프로메가 5만 개의 계약금 1억 3,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소인 남해정이 고소인 백성만에게 위 계약금을 어컴퍼니 명의 계좌로 반환해 줄 테니, 어컴퍼니는 대한상인에, 대한상인은 오케이종합유통 계좌로 5만 개에 대한 계약금 1억 원을 순차 지급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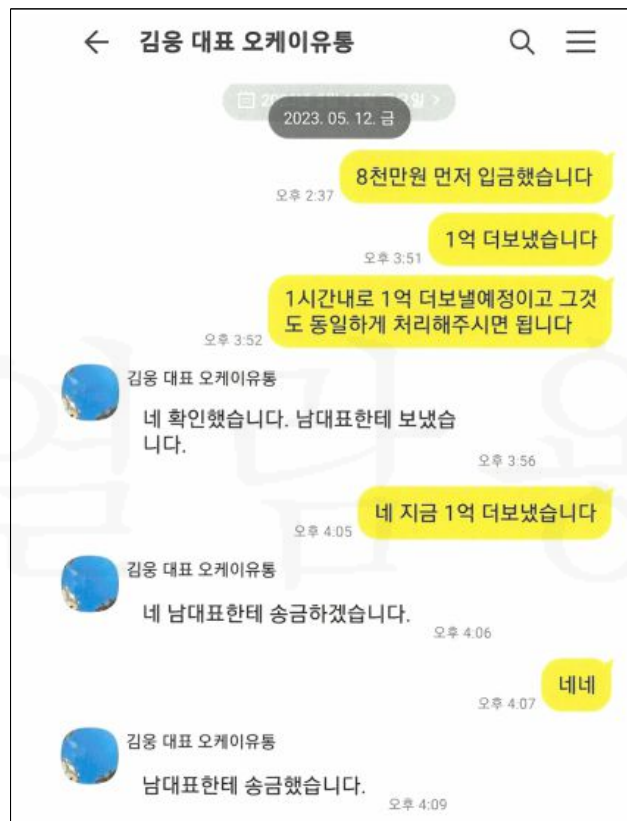
○ 이에 대한상인은 2023. 5. 12. 14:37, 15:44, 16:05 오케이종합유통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합계 2억 8,000만 원¹³⁾(= 2억 3,000만 원 + 5,000만 원)을 송금하였고(첨부서류 25. 대한상인 입금증), 피고소인 김웅은 같은 날 고소인

고소인 백성만을 만난 자리에서 자신을 ‘오혜나’ 라고 소개하면서 대전에서 뷔페와 학원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고소의 김현수가 2023. 5. 3. 고소인 백성만에게 ‘오혜나의 본명은 박나연이다’ 라는 취지로 말했고, 이에 고소인 백성만은 이날 아르고티에서 피고소인 남해정을 만나 서야 오혜나, 박나연이 사실은 피고소인 남해정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13) 1회에 최대 1억 원까지 송금할 수 있으므로, 8,000만 원, 1억 원, 1억 원을 순차로 송금하였습니다.

최병선에게 ‘피고소인 남해정에게 위 돈 전액을 송금하였다’고 하였습니
다[첨부서류 15. 최병선-김웅 카카오톡 대화(2023. 5. 12.)].

[첨부서류 15. 최병선-김웅 카카오톡 대화(2023. 5. 12.)]



○ 거래결과: 대한상인은 오케이종합유통으로부터 상품을 전혀 공급받지 못하였습니다.

나. 이 사건 거래가 사기임을 입증하는 자료

○ 거래 결과 요약: 위와 같이 피고소인들은 건강기능식품인 오쏘물, 프로

메가, 텐프스를 공급하기로 하고 대한상인으로부터 7회에 걸쳐 합계 665,750,000원을 송금받았으나, 상품을 전혀 공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 피고소인 남혜정은 고소인 백성만에게 ‘2023. 4. 26. 오케이종합유통으로부터 받은 합계 2억 6,000만 원을 슈마웰에게 입금하였다’ 면서 2023. 4. 26.자 2억 6,000만 원의 입금증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위 입금증에는 은행이 표시되어 있지 않고, 이체 후 잔액도 -59,979,995원(= 20,005원 - 6,000만 원)이 아니라 20,005원 그대로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입금증은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첨부서류 22. 피고소인 남혜정이 고소인 백성만에게 보내준 농협계좌내역).

[첨부서류 22. 피고소인 남혜정이 고소인 백성만에게 보내 준 농협계좌내역]

3 건		잔액표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주식회사 슈마웰	-60,000,000원	
2023/04/26 12:39	<u>20,005원</u>	
주식회사 슈마웰	-100,000,000원	
2023/04/26 12:37	<u>20,005원</u>	
주식회사 슈마웰	-100,000,000원	
2023/04/26 12:34	100,000,005원	

○ 고소인 최병선은 종근당 부사장 고소외 정재신에게 피고소인 남혜정이 고소인 백성만에게 보내준 위 입금내역을 보내며 슈마웰이 2억 6,00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이 있는지 문의하였고, 위 정재신은 슈마웰 대표에게 확인한 후 고소인 최병선에게 ‘슈마웰은 전화 이외의 어떤 거래도 안 하니 돈을 보내면 물건을 주겠다고 하는 것은 사기일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습니다(첨부서류 21. 최병선-종근당 부사장 정재신 카카오톡 대화).¹⁴⁾

○ 피고소인 남혜정은 2023. 5. 15. 고소인 백성만에게 자기 명의 농협 계좌(356-1546-8904-53)에서 오케이종합유통 명의 계좌에 이체한 내역을 보냈습니다(첨부서류 27-1 내지 12, 첨부서류 29).

○ 피고소인 남혜정과 고소인 김현수는 2023. 5. 17. 15:00경 용산 소재 커피전문점에서 고소인 백성만에게 2023. 5. 9. 이후부터 대한상인에게 출고하기로 한 프로메가가 공급되지 못하는 이유는, 피고소인 김웅이 피고소인 남혜정에게 오케이종합유통이 피고소인 남혜정에게 입금한 돈을 돌려달라고 요청하는 등 피고소인 남혜정이 피고소인 김웅의 지시에 따라 임의로 입금하였기 때문이며, 피고소인 김웅이 위와 같이 빼간 돈은 1억 3,000만 원이 아니라 약 5억 원에 달한다고 하였습니다.

○ 피고소인 남혜정은 2023. 5. 17. 고소인 백성만에게 자신이 오케이종합유통의 대표이사 김영옥 명의 계좌와 피고소인 김웅의 지시에 따라 고소인 서성혁 명의 계좌에 이체한 내역을 보냈습니다(첨부서류 28-1 내지 7).

○ 고소인 백성만은 2023. 5. 19. 피고소인 남혜정이 계약금 1억 1,000만 원을 입금하였다는 에스트론을 찾아가 대표이사인 문기석(010-6350-1847)을 만나서 사정을 설명하였습니다. 위 문기석은 프로메가를 담당하는 에스트론

14) 고소인 최병선은 자신이 사기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굳이 밝히고 싶지 않아, ‘아직까지 피해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사 이용욱(010-4528-5565)을 소개해 주었고, 위 이용욱은 고소인 백성만에게 ‘피고소인 남혜정으로부터 8,090만 원을 입금받은 적도 있고, 2023. 5. 12. 프로메가 1만 개를 거래한 적도 있지만, 그 거래금액이 8,090만 원인지는 확인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위 이용욱은 ‘에스트론은 계약금을 받지 않으며, 에스트론은 박나연(고소인 남혜정)과 거래사실이 있으나, 피고소인 남혜정이 대한상인에 약속한 구매가는 과소하여 도저히 거래할 수 없는 가격’ 이라고 하였습니다.

3. 피고소인 남혜정의 사기

○ 피고소인 남혜정은 2023. 5. 10.경 고소인 백성만에게 ‘피고소인 김웅이 돈을 중간에서 빼 갔지만, 자신이 파란고래에 지급한 계약금 중 6천만 원은 파란고래가 보유하고 있으므로, 1억 5,000만 원을 추가로 내면 텐프스 1만 개를 공급하겠다’고 하면서 ‘피고소인 김웅에게는 이를 비밀로 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고소인 백성만이 ‘이미 계약금을 지급하였는데, 왜 추가로 돈을 내느냐’고 묻자, 피고소인 남혜정은 이 건은 기존 4만 개와 별도로 라고 하였습니다.

○ 이에 어컴퍼니는 2023. 5. 11. 피고소인 박나연(남혜정) 명의 계좌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하였습니다(첨부서류 23. 어컴퍼니의 박나연 이체 내역). 그러나 피고소인 남혜정은 어컴퍼니에 2023. 5. 10. 텐프스 7,000개, 같은 해 5. 12. 텐프스 1,000개를 공급하였으나, 4,200만 원 상당의 나머지 텐프스 2,000개는 공급하지 않았습니다.

○ 고소인 백성만이 2023. 5. 18. 피고소인 남해정이 제품을 공급받아 온다는 파란고래 이현석 실장(010-4477-2470)을 만나서 확인한 결과 ‘파란고래는 거래 시 계약금을 수령하지 않으며, 피고소인 남해정이 파란고래에 입금하였다는 계약금 8,000만 원은 파란고래에 입금된 사실이 없다. 피고소인 남해정이 텐프스 4만 개를 주문한 것은 맞지만, 그 대금을 입금한 사실이 없고, 구매가는 1개당 21,500원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 당초 피고소인 남해정은 본인이 직접 구입하는 구매가가 1개당 21,500원인 텐프스를 구입하여 고소인 백성만에게 이보다 저렴한 21,000원에 공급하여 주겠다고 하면서 금원을 받아간 것은 처음부터 피고소인 남해정이 고소인 백성만에게 텐프스를 구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이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

○ 고소인 백성만은 이후 피고소인 남해정에게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피고소인 남해정은 고소인 백성만에 대하여 카카오톡과 전화를 모두 차단하여 연락이 두절된 상태입니다.

4. 기타 중요사항: 전국에 다수의 피해자가 있으니 출국금지 등 신속한 수사로 엄벌에 처해주시기 바랍니다.

○ 고소인들이 이 사건 기망을 당한 사실을 알고 주위에 알아보니 피고소인들은 상습적으로 사람들에게 접근하여 인기 있는 건강기능식품을 쉽게 구입해서 조달해 주겠다고 하면서 수십 명을 상대로 수백억 원의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합니다.

○ 이와 같이 전국에 수백억 원의 피해가 있는 등 죄질이 불량한 다중 피해자가 있는 사건이므로 신속히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출국금지 및 압수수색을 통해 그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을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첨 부 서 류

1. 대한상인 등기사항증명서
- 2-1. 어컴퍼니 등기사항증명서
- 2-2. 백성만 명함
3. 오케이종합유통 등기사항증명서
4. 엔케이네트웍스 등기사항증명서
5. 박나연 사업자등록증
6. 최병선-김웅 카카오톡 대화(2023. 4. 25.)
7. 최병선-김웅 카카오톡 대화(2023. 4. 26.)
8. 최병선-김웅 카카오톡 대화(2023. 4. 27.)
9. 최병선-김웅 카카오톡 대화(2023. 4. 28.)
10. 최병선-김웅 카카오톡 대화(2023. 5. 2.)
- 11-1. 최병선-김웅 카카오톡 대화(2023. 5. 3.)
- 11-2. 김현수 문자메시지
12. 최병선-김웅 카카오톡 대화(2023. 5. 4.)
13. 최병선-김웅 카카오톡 대화(2023. 5. 8.)
14. 최병선-김웅 카카오톡 대화(2023. 5. 10.)
15. 최병선-김웅 카카오톡 대화(2023. 5. 12.)

16. 최병선-김웅 카카오톡 대화(2023. 5. 16.)
17. 최병선-김웅 카카오톡 대화(2023. 5. 17.)
18. 최병선-김웅 카카오톡 대화(2023. 5. 18.)
19. 최병선-김웅 카카오톡 대화(2023. 5. 20.)
20. 최병선-김웅 카카오톡 대화(일자불상)
21. 최병선-종근당 부사장 정재신 카카오톡 대화(일자불상)
22. 남해정이 최병선에게 보내 준 농협계좌내역
23. 어컴퍼니의 박나연 이체 내역
24. 대한상인-오케이종합유통 거래내역
25. 대한상인-오케이종합유통 이체확인증
- 26-1. 김웅 명함
- 26-2. 김웅 명함
27. 남해정-백성만 카카오톡 대화(2023. 5. 15.)
28. 남해정-백성만 카카오톡 대화(2023. 5. 17.)
29. 남해정(스토리컴퍼니) 명의 농협 계좌
30. 상품공급약정서(2023. 4. 28.)
31. 슈마웰 등기사항증명서
32. 에스트론 등기사항증명서
33. 대한상인-오케이종합유통 입출금(2023. 4. 25. 및 4. 26.)
34. 대한상인-오케이종합유통 입출금(2023. 4. 28.)
35. 대한상인-오케이종합유통 입출금(2023. 5. 2.)
36. 최병선-김웅 카카오톡 대화(2023. 4. 24.)
37. 최병선-김웅 카카오톡 대화(2023. 4. 25.)
38. 최병선-김웅 카카오톡 대화(2023. 4. 26.)
39. 백성만-이용욱 에스크론(2023. 5. 19.) 녹취록

2023. 6. 5.

고소인들의 대리인

범무법인 해법 담당변호사 이 철 희

담당변호사 심 정 운

서울수서경찰서 귀중

범 죄 일 랫 표

순 번	일시	장소	피해자	범행방법	피해액(원)
1	2023. 4. 25. 14:01	불상지	대한 상인	“2023. 4. 25. 14:00까지 대금의 10%, 같은 해 4. 26.까지 대금의 10%, 상차 시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오쏘몰 5천 개를 1개당 69,000원에 공급하겠다”고 거짓말하고 2023. 4. 25. 계약금 명목으로 3,450만 원을 교부받음	34,500,000
2	2023. 4. 26. 12:25	불상지	상동	“프로메가 5만 개를 1개당 7,400원에 공급하고 1개당 8,200원에 판매하도록 하여 2023. 5. 2.부터 같은 해 5. 2.까지 프로메가 5만 개를 판매한 후 판매 당일 대한상인으로 수익을 송금하겠다”고 거짓말하고 2023. 4. 26. 계약금 일부 명목으로 1억 3,000만 원을 교부받음	130,000,000
3	2023. 4. 26. 16:38	불상지	상동	“2023. 4. 25. 14:00까지 대금의 10%, 같은 해 4. 26.까지 대금의 10%, 상차 시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오쏘몰 5,000개를 1개당 69,000원에 공급하겠다”고 거짓말하고 2023. 4. 26. 계약금 명목으로 3,450만 원을 교부받음	34,500,000
4	2023. 4. 28. 14:11	불상지	상동	“2023. 4. 28.부터 2024. 4. 27.까지 프로메가 월 최소 15만~20만 개를 1개당 6,900원에 공급하겠다”고 거짓말하고 2023. 4. 28. 계약금 명목으로 1억 3,800만 원을 교부받음	138,000,000

5	2023. 4. 28. 22:18	불상지	상동	“텐프스 4만 개의 구매가를 1개 당 19,500원으로 하고, 2023. 5. 4. 부터 1주일에 1만 개씩 공급하겠다” 고 거짓말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교부받음	25,000,000
6	2023. 5. 2. 16:08	불상지	상동	“텐프스 4만 개의 구매가를 1개 당 19,500원으로 하고, 2023. 5. 4. 부터 1주일에 1만 개씩 공급하겠다” 고 거짓말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2,375만 원을 교부받음	23,750,000
7	2023. 5. 12.	서울 강남구 역삼로 432 아르고티 대치점	상동	“프로메가의 출고 총판인 슈마엘에 2023. 4. 26.자 프로메가 5만 개의 계약금 일부 1억 3,000만 원이 입금되어 있고, 에스트론에는 2023. 4. 28.자 프로메가 10만 개의 계약금 20%인 1억 3,800만 원이 입금되어 있다. 슈마엘에서 피고소인 김웅이 1억 3,000만 원을 빼가는 바람에 물건이 안 나오니 차라리 1억 3,000만 원을 에스트론에 입금해서 다음 주부터 7만 개를 납품할 예정인데, 슈마엘에서 환불하면 1주일이 걸리니 차라리 2억 3,000만 원을 더 입금하면 다음 주까지 대한상인에게 7만 개를 납품하겠다. 또한 2023. 5. 15. 까지 (위 7만 개와 별개로) 프로메가 5만 개 중 1만 개를 보내줄 테니 1억 원을 추가로 입금하되, 5천만 원은 같은 해 5. 12. 입금하고, 나머지 5천만 원은 같은 해 5. 15. 상차 시 입금하라” 고 거짓말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2억 8,000만 원을 교부받음	280,000,000
피해액 합계					665,750,000